

한영교회 온 가족 예배

12/11(월)~16(토)



하나님이 주신다는 가정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가정
우리 가정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웁니다



지혜로운 자여, 비방을 그치라

[욥기 34:1-30]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91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말씀은 [욥기 34:1-30]의 말씀입니다.

고난당할 때 그 사람의 지혜가 드러납니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자신의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고 불평합니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성도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1. 오직 하나님만이 정의의 기준이시다 엘리후는 지혜로운 자들에게 무엇이 선한지 함께 알아보자고 말합니다. 욥이 자신의 의로움을 하나님이 부인하셨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기준에 따라 하나님의 공의를 부인하는 사람은 마치 비방을 물 마시듯 하는 악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하나님께 불평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지요. 우리의 작은 머리로 하나님의 정의를 판단하려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시도입니까? 부딪힐 만한 돌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어리석은 불평을 그칩시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의를 구합니다.

2. 오직 하나님만이 공의로 돌보신다 엘리후는 다시금 총명한 자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악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전능자는 절대 잘못 행하지 않으십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며 온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으신다면 온 세상의 육체가 한순간에 흩어 버리겠지요.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공의로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때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온 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살을 꼬집으며 우리의 인생이 여전히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공의롭게 돌보십니다.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3. 오직 하나님만이 공평하게 심판하신다 엘리후는 욥에게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전능하심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고 공의를 굽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은 악인에게 참지 않으십니다. 악인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멸망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외모를 보고 그것으로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이 말씀을 의지해서 살면 악한 세상에서 정의롭게 살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우리의 행위를 되돌아보고 세상이 비웃어도 믿음으로 삽시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바로 그날에 악인은 흘날리는 재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나눔 1. 하나님의 말씀과 내 판단이 부딪칠 때가 있었습니까? 그럴 때 어떤 결정을 하게 되었나요?

2. 이해가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한 경험이 있었나요?

기도 공의로우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참된 기도는 무엇인가

[요기 34:31-35:16]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64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말씀은 [요기 34:31-35:16]의 말씀입니다.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은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렇다면 참된 기도는 무엇입니까?

1. 높으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라 참된 기도는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독한 고난이 오면 대부분 낙심합니다. 지금 요도 그런 상태인데, 무죄한 자에게 비참한 고난을 주시니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하면서 절망합니다. 여러분 역시 이런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까? “열심히 교회에 다니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꽤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일이 잘 안 풀릴까?”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식으로 어려움을 주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은 틀렸고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소용없고 주를 위해 의를 행해도 유익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다시 높으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분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께 나아가십시오.

2. 초월적인 하나님을 다시 인정하라 참된 기도는 초월하신 하나님을 인정할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저 높이 뜬 구름처럼 초월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사람의 행위와 생각에 영향을 받지 않으시며 계획하신 뜻대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가 많습니다. 어떤 때는 의를 행해도 보상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이며 악을 행해도 벌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대로 단순하게 움직이시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초월하셔서 더 큰 지혜로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옳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3. 절대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을 다시 신뢰하라 참된 기도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며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주권적 통치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더 큰 깨달음과 성숙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자신의 처지에 대해 불평하며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원망하며 투덜거리는 기도는 교만한 기도에 불과합니다. 온전한 지혜를 가지시고 그 뜻대로 행하시는 절대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께 배우기를 구하며 그분의 도우심을 바라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눔 1. 모든 것이 짝 막힌 것 같은 상황 속에서 기도의 무기력을 경험했던 일들이 있다면 나눠봅시다.
2. 이제 끝이라고 여긴 순간, 하늘을 향해 열린 위로와 도움과 평안을 경험했던 일들도 나눠봅시다.

기도 사방이 막힌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의 고개를 들어 위로 열린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고난의 현장은 하나님의 학교다

[요기 36:1-25]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73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말씀은 [요기 36:1-25]의 말씀입니다.

고난의 현장은 하나님의 학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통해 진정으로 무엇인가를 배웁니다. 고난의 때에 가장 많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배울 수 있습니까? 배우는 자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1. 온전한 지식을 통해 배우십시오 엘리후가 자신의 지식을 '온전한 지식'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면에서 얻은 지식 곧 하나님이 주신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지식이 있어야 고난의 문제를 포함한 인생의 제반 문제에 답할 수 있습니다. 고난이 아무리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현장이라 하더라도 온전한 지식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지식은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분이며 무엇을 위해 일하시는지를 알아 그분 앞에 엎드릴 수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때 성경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러면 참되게 배울 수 있습니다.

2. 의인을 높이시는 것을 배우십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함부로 사람을 멸시하며 이유없이 고난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무궁하신 지혜로 악인을 벌하시며, 억울하게 고난 받는 자를 신원해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까? 인생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멸시하셔서도 아니요 공의롭지 않으셔서도 아닙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관심하셔서 악한 세력이 공격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모두 우리를 연단시켜 높이시며 왕좌에 앉히시며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찾는 경건한 자에게서 결코 눈을 떼지 않으신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의인을 높이시는 하나님을 배울 때 어떤고난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3.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교훈을 배우십시오 하나님이 배우게 하시는 것은 고난이 아니고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값비싼 진리들입니다. 죄를 들추어내시고 교만을 꺾으시며 그분의 말씀을 듣게 하실 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고난은 우리의 배움, 순종, 회개, 경건이 가장 드높아지는 빛입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교훈, 참된 순종을 배우십시오. 이제 하나님이 형통한 날을 허락하시며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순종하며 그분께 나아가는 자를 구원하시며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알 때 어떤 고난도 능히 이겨 낼 수 있습니다.

나눔 1. 나의 지식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온전한 지식이 무엇일지 서로 나눠봅시다.

2. 고난을 통해 나를 더욱 견고하고 성숙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 서로 나눠봅시다.

기도 인생을 통해 우리를 가르치시고 성숙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게 하소서.

자연을 통해 계시되는 하나님

[욥기 36:26-37:24]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69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말씀은 [욥기 36:26-37:24]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피조 세계를 통해 하나님을 묵상한다면 만물의 웅장함과 경이로움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며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1. 천둥을 통해 천둥소리는 위엄에 찬 하나님의 음성을 계시합니다. 만물을 진동시키며 천하에 펼쳐지는 천둥소리처럼 하나님은 위엄에 찬 목소리로 명령하시며 만물을 복종케 하시며 온 천하를 다스리십니다. 누가 감히 그 음성을 멈추게 할 수 있으며, 누가 감히 그 명령으로 행하시는 통치에 시비를 걸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과 영광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지 알지 못하기에 순종하지 않으며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음성으로 우리가 도무지 헤아릴 수 없는 큰일을 행하십니다.

2. 눈과 비를 통해 눈과 비는 하나님의 창조를 알게 합니다. 하나님은 눈과 비를 적절한 때에 내려 만물을 소성케 하십니다. 또한 큰 눈과 비로 사람과 짐승을 꼼짝 못하게도 하십니다. 폭풍우를 일으키시며 북풍의 추위를 내리셔서 짐승으로 동면하게 하시며 입김을 불어 만물을 열게도 하십니다. 이런 놀라운 자연현상이 있을 때 신자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새삼 다시 확인합니다.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외감으로 다시 보는 것이죠. 하나님은 친근한 '아빠 아버지'로 다가오기도 하시지만 온 천하로도 다 담을 수 없는 위대한 창조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3. 구름을 통해 구름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세세한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보여 줍니다. 하나님은 구름을 조종하셔서 온갖 일을 행하게 하시며, 그 명령대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필요한 물을 공급하시기도 하고, 때를 따라 징계하시거나 긍휼도 베푸십니다. 이것만큼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잘 드러내는 것이 또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그러나 그저 말로만 그렇게 고백하고 실제로는 믿지도 않고 신뢰하지도 않는 것은 아닙니까?

- 나눔**
1. 피조세계를 통해 계시되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합당하다고 외치며 찬양을 돌리고 있습니까?
 2. 위대한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마땅히 엎드려 예배하고 정하신 인생길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기도 피조 세계가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위대하심을 선포함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더 깊이 신뢰하게 하소서.

무지를 피하기 위한 세 가지 방법

[요기 38:1-17]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말씀은 [요기 38:1-17]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욥에게 나타나십니다. 이 하나님의 현현은 욥이 참으로 기다리던 기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첫 말씀은 “너는 무지하며 어둡게 하는 자다”였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처럼 무지한 우리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1.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사람이 무지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여기서 허리를 묶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에 대해 준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쟁 준비를 의미하기도 하지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투하듯이 적극적으로 들으라는 말씀이지요. 또한 그 말씀을 듣고 논쟁하듯이 답해보라는 것입니다. 누가 옳고 무엇이 진리인지 따져 보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욥은 이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순복하며 신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친구나 엘리후가 말했을 때 욥은 반발하거나 침묵했지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믿음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럴 때 모든 무지와 의심과 불평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2. 하나님의 창조를 생각하십시오 불평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의 창조를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우주 만물이 잘 보존되도록 통치하심을 확신합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까?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버티며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심을 깊이 신뢰하는 것이 신자의 삶의 기본입니다.

3.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십시오 의심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태양이 규칙적으로 떠올라 낮과 밤이 순환하도록 하시며, 깊은 물 밑까지 통제하시고, 사람이 보지도 못하는 사물의 문을 다스리시며, 온 땅의 모든 것을 측량하시며 다 아셔서 운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지혜를 측량할 수 없으며, 그것은 사람의 지혜로는 상상도 할 수 없이 높고 광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지혜를 깊이 생각하며 묵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지혜와 뜻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 그 완전하고 풍성한 지혜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만 있다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신뢰와 평강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나눔 1. 나를 평가하고 궁지로 몰아넣는 사람을 대할 때 나는 어떻게 합니까?

2.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아래 있는 나는 창조의 순리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세요.

기도 하나님의 능력, 지혜, 사랑을 알고 힘있게 이 세상을 살아내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알기를 더욱 원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라

[요기 38:19-38]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78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말씀은 [요기 38:19-38]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도 말로 다 할 수 없이 크지만, 그분의 긍휼과 사랑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합니다.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인정하는 자는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1. 하나님의 지혜를 바라보라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갑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흉내조차 낼 수 없습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며,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무지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빛과 어둠의 처음과 근원을 다 아시며 그것을 적절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어떠한지를 다 알 수 없지만, 다행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셔서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이며,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지 알게 하셨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또한 성경을 읽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바라보며 지혜롭게 사는 길입니다.

2.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적절한 기후를 허락하시며 우레와 번개와 구름과 비와 이슬과 얼음을 다스리시며, 별들을 움직여 사시사철을 버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공급하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 대신 이런 일들을 하겠다고 나설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을진대 누가 감히 인생의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잘못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대할 뿐입니다.

3.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고 의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을 얻었고 매 순간 긍휼을 구하며 삽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며 겸손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무능을 인정하고 한없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까마귀 새끼가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리는 것조차 그냥 두고 보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음을 어찌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며 허우적거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실 것입니다.

나눔 1.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의지하며 사는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2.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기도 하나님은 전지하시며 전능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돌보아 주시는 은혜가 큼을 고백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루하루를 살아내게 하옵소서.